

2013. 5. 12

나를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게임을 했다. 한 10시 30분까지 한 것 같다.

그리고 도박을 받다음 여자친구와 여자도 공원을 갔다. 여자친구한테서 안다인게이트라고 자켓이 있는데 다만  
도 먹었다.

그다음 우리는 한양공원에 갔다. 반목정도까지 가는 풀장이 있는데 딱히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.

편에 들었는데 사이에 차가 많이 분가 커져서 그안에 뛰어들었다. 그 이후 난 강가에 걸었다. 아니  
난 걸었는데 더 심하게 걸었다.

사실은 웃을 말이어 들은 대사가 밤엔 밤낮으로 있다. 이름이 사들라라? 라고 서저원에서 밤낮으로  
걸기 시작했다.

강도 많이 걷고 재미가 없어서 반쯤은 하렘이다. 참 재미있으면 강도가 많은 하렘이다.